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확정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국제경쟁을 비롯한 주요 경쟁부문 심사위원을 확정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12일 "감독과 배우, 평론가,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편영화 1~2편을 연출한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경합을 벌이는 '국제경쟁'에는 장 피에르 롬 마르세유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이자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을 연출한 일디코 엔예디 감독, 프랑스의 도미니크 카브레라 감독, '너는 내 운명', '그 북 목소리' 등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 '내 사랑 내곁에', '해운대'의 배우 하지원이 선정됐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한국경쟁' 심사는 홍콩국제영화제 큐레이터이자 베를린국제영화제 아시아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제이콥 왕,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세실리아 바리오우에보, '파이란', '우리의 행복한 시간' 등을 연출한 송해성 감독이 맡는다.



총 19편이 경합하는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는 세계 3대 단편영화제로 꼽히는 템페레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주카-페카 락소, '최악의 하루'로 제38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협회

상을 수상한 김종관 감독,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더 킹'의 배우 정은채가 위촉되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에서 시상하는 '넷팩상'은 세네갈 등 다양한 매체에

국제경쟁에 장 피에르 롬 마르세유 위원장
일디코 엔예디·도미니크 카브레라
박진표 감독·배우 하지원 선정

한국경쟁부문에 제이콥 왕
송해성 감독 등 3명이 담당

한국단편에 주카-페카 템페레 위원장
김종관 감독·배우 정은채 위촉

◆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국제경쟁을 비롯한 주요 경쟁부문 심사위원을 확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디코 엔예디 감독, 배우 하지원, 박진표 감독, 한창호 영화평론가, 송해성 감독, 김종관 감독.

기고하며 활동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한창호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명성을 얻은 다큐멘터리 감독 알가 사닷, 전해정 런던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무주음악보존회 창립총회 개최

무주음악보존회 창립총회가 12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보존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음악보존회는 농악의 전통과 자산을 보유한 농악을 보호·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 무주군이 추진했던 무주음악기록화사업을 토대로 무주농악의 뿌리를 찾아 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황정수 군수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달을 하고 좋은 음악이 많아졌어도 삶에 흥을 불어넣어주는 농악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회원 여러분 각자가 우리고장의 농악을 대표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음악보존회 회원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농사를 돕던 농악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장에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전주시가 2017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조직위원회의 중심으로 개최할 가운데 조직위원장으로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을 전격 영입했다.

시는 대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명망가를 영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들어 김 전 장관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주출신으로 예술계의 두터운 신망과 함께 다양한 행정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제8대 문화관광부장관(06.3~07.3)을 비롯해 국립극장 극장장, 2009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및 동양대학교 예술대학장에 재임 중이다. 그는 영화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주시 "대회 성공 개최 위해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벌여왔다. 서편제(93), 태백산맥(94), 광해(12), 명량(14), 무수단(15) 등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 등 국악 실기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곤 조직위원장 내정자는 2017년 전주대사습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혁신적 개편안을 마련해 가는 데에 시와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김승수 전주시



김명곤 전 장관

장과 김명곤 전 장관이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치러진다.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조직정비 및 대회준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시는 조만간 김명곤 조직위원장 내정자와 협의 하에 조직위 위원 인선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대회 개최(9월 20일 이전)를 위한 혁신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조직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8명·대사습보존회 추천 4명·당연직(도·시·mbc관련 국장) 3명으로 구성

된다. 또한 5월 중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사방식, 경연 및 공연 준비, 부정청탁 제발방지 대책마련 등 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5~6월경 '전주대사습놀이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신망이 높은 김명곤 전 장관을 조직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만큼 2017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실추된 전국 최고 명성의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예 회복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공연 & 전시



15일 고창읍성에서 '동리정사, 봄꽃 물들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15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테마공연 '동리정사, 봄꽃 물들다'를 고창읍성 야외 특설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고창 지역 내 국악인과 최고의 명인명창, 명무가 함께 펼치는 국악의 향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는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한학교육자이자 방송인 김봉근 훈장이 맡으며, 1부 '동리정사의 봄'에서는 사물놀이패 예울림(배영애 외 5명), 남도민요·새타령(김옥진 외 6명), 판소리·춘향가 중 이별가(소리 김혜인, 고수 오흥민), 판소리·심청가 중 황성잔치 올라가는 대목(소리 남미희, 고수 김상수) 등이 무대에 오른다.

2부에서는 명인, 명창, 명무가 어우러지는 '동리정사의 주악(奏樂)'으로 진도북춤(공희정, 문남철, 박소리)이 흥을 북돋으며 국악가요-배 띄워라(김응경), 판소리·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소리 김보근, 고수 오흥민)과 우아한 춤사위의 마당으로 태평무(공희정, 문남철), 현금(玄琴)풍류(춤 이종규, 거문고 권민정), 교방삼풀이(박지운, 정영진), 교방구거리(공희정, 박소리), 허튼수건춤(이종규, 박지운, 정영진)을 선보인다.

또한 판소리·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둔타령),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소리 김연, 고수 오흥민)과 판소리보존회의 남도민요·지경다짐 진도아리랑 등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이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리국악 테마 공연은 고창군이 시도하는 국악 활성화 위한 기획공연으로 판소리의 성지인 고창군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국악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연 4회로 계획하고 있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관광과(063-560-246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발레단 '해설 있는 발레 갈라쇼' 완주서

국립발레단의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쇼' 공연이 오는 19일 완주군 문화회관에서 130여명의 취약계층아동 가족들이 참여 예정인 가운데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1X(한국국토정보공사)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국립발레단의 유명작품 탱고, 탈리스만, 해적, Are you as big as me?, 라 바이테르, 돈키호테를 재구성해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설까지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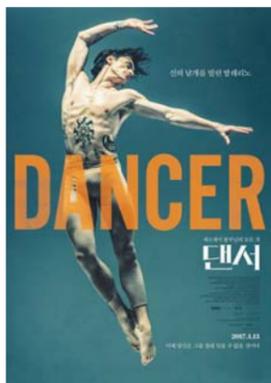
정희정 교육아동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발레공연을 통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외계층 아동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주말 개봉작 '댄서' '여자의 일생'

천재 발레리노 세르게이의 이야기

-댄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4월 둘째 주 개봉작으로 천재 발레리노의 이야기 '댄서'와 프랑스 문학의 거장 모파상의 원작을 각색한 '여자의 일생'을 상영한다.



영화 '댄서'는 영국 로열 발레단 사상 최연소 수석무용수로 발탁된 천재 발레리노 세르게이 풀루닌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세르게이는 19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수석무용수 자리에 올랐지만, 발레 세계에 서는 상상도 못 했던 문신을 온몸에 새기고 파리를 즐기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2년 만에 세계 최정상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영화는 천재 발레리노, 슈퍼스타, 반항아, 발레계의 배드 보이 등 상반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세르게이의 가족 이야기, 발레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 그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려냈다. 작품은 현대 발레계의 독보적인 재능을 뽐내고 있는 세르게이 풀루닌의 꿈과 열망, 도전과 좌절을 날카롭게 살핀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모파상의 동명 걸작 소설을 영화화한 여자의 일생은 완벽한 행복을 꿈꿨던 여인 잔느가 생각지 못한

프랑스 문학 거장 모파상의 소설 영화화

-여자의 일생-



탁월하게 각색해내며 제7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롯해 프랑스 최고의 제작진들과 그리고 실력 있는 떠오르는 스타 주디스 켈라의 섬세한 연기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삶의 사건들을 겪으며 인생과 사랑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아버지의 초상화로 간염 화제 특별언급에 오른 실력과 감독 스테판 브리제 감독이 20년 전부터 준비한 인생 프로젝트로 원작에서 표현한 섬세한 심리 묘사를 영화적으로